



운창와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㉔

선(禪)과 차(茶)-다선일여(茶禪一如)

‘선(禪)과 차(茶)는 그 세계가 하나[茶禪一如]’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고려로부터 선승들은 차를 많이 마셨다. 이미 위진남북조(220~589) 때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선이 크게 흥성하는 당 후기(800년대)가 되면 총림에서 차(茶)는 일상의 하나로 자리 매김한다.

단순한 기호식품인 차를 정신의 세계로까지 끌어 올린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선(禪)이다. 선은 근심과 걱정, 번뇌 망상을 제거(즉 청정)하여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茶) 역시 그 목적인 심신(身心)의 안정이다. 이 모두는 ‘청정(淸淨)’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있다. 선승들은 그것을 ‘다선일미(茶禪一味)’ ‘다선일여(茶禪一如)’라고 까지 표현했는데, 차(茶)는 선을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선(禪)과 차향(茶香)이 모두 그윽해서 무어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차와 선을 일치시키고, 차를 선화(禪話) 속에 끌어들이는 선승은 매우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다면 무자화두로 유명한 조주선사(趙州: 778~897)일 것이다. 그는 ‘꼭다거(喫茶去)’라는 평범한 말로 전하를 혼란시킨 선승인데, 누구든 찾아오면 첫 인사 ‘꼭다거’였다. 조주 선사는 ‘차 한 잔 드시지요’라는 말로서, 이 이상한 접대방식은 곧 선의 세계를 표출한 정형구로 이해되어 ‘조주꼭다(趙州喫茶)’라는 불멸의 공안을 낳았다.

선종사원에서 차(茶)는 공양과 함께 일상의 하나이다. 대중 모두가 하루에도 수차례 차를 마셨다. 차(茶)와 그 향(茶香)은 정신을 맑게 해 주고, 번뇌 망상을 없애주며, 마음을 청정(淸淨)하게 하여, 궁극의 이상인 적정(寂靜)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좌선을 할 때 졸음을 없애 주고, 소화를 촉진시켜 주며, 특히 불음주계를 지키고 있는 선원에서 빈객을 접대할 수 있는 문화적 매체는 차(茶)가 유일했다.

송대에 이르러 일반인에서도 차문화가 유행해 다관(茶館)과 주점(酒店)이 비슷할 정도였다. 이와 함께 선종사원에도 차문화가 크게 발달해 음다(飲茶), 혹은 꼭다(喫茶)는 선승의 생활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별도로 다료(茶寮, 큰 다실)가 신축돼 종래 종로(寮寮, 큰방, 대중방)에서 마시던 차(茶)가 다료로 옮겨간 뒤로는 좀 더 격식이 따랐다. 선원의 규범을 기록한 <선원청규>에는 “장차 총림에 들어 오고자 하는 납자(掛塔, 입방승)는 주장자, 발랑, 정병(淨瓶) 등과 함께 다기(茶器)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을 정도이다.

또 선원에는 농장 관리자인 장주(莊主) 외에 별도로 전문적으로 차 밭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 차를 만드는 제다(製茶) 기술, 명차(名茶)의 재배와 생산 그리고 차를 우려내는 전다(煎茶) 솜씨는 일반을 능가했다. “유명한 사찰에서 명차(名茶)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 유명한 차 가운데 하나인 몽산차(蒙山茶, 한나라 보혜(普賢)스님이 만듦)와 벽리춘[水月茶], 무이암차 중에서도 명성이 높은 수성미(壽星眉)·연자심(蓮子心)·봉미용수

등은 모두 선승들이 만든 차(茶)였다. 차는 선과 어우러지면서 ‘다선일여(茶禪一如)’라는 독특한 선종사원의 차문화를 형성했다. 이름 있는 선승은 모두 차(茶)의 명인(名人)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원에서 차를 달이는 소임을 ‘다두(茶頭)’라고 한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다각(茶角)’이라고 한다. 승당(선당)의 다두, 방장의 다두, 수좌료(首座寮, 수좌실)의 다두, 유나실의 다두, 지객료의 다두, 고사(庫司, 원주실)의 다두 등 각 요사마다 다두가 있었다. 이것은 그만큼 찾자리가 많았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방장이 지사(知事)나 두수(頭首) 등 소인자들을 위해 내는 소좌탕 등 소규모 다석(茶席)에서는 담소 겸 선문답도 빈번하게 왕래했다. 단순한 차마시기가 아니라, 수행의 하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의 하나였던 것이다.

다석(茶席)과 다연(多宴)도 적지 않았다. 청규에서는 이것을 ‘다탕(茶湯)’이라고 하는데, 본래는 차를 뜻하는 말이지만 ‘찾자리’ 곧 다석(茶席)을 가리키기도 한다. 선원에서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는 때는 새벽 예불 후 좌선을 시작할 때와 점심 공양 후 그리고 저녁 공양 후에도 마셨다. 특히 종로(寮寮, 대중방)에서 점심공양을 마친 후에는 전 대중이 차를 마셨는데, 찾자리가 끝나야 나올 수가 있었다.

선과 차의 목적은 심신 안정

마음의 평온 이르게 함이 같아

그 밖의 찾자리로는 총림의 4절(四節·하얀거결제일, 해제일, 동지, 정월 초하루)에 전 대중이 함께 마시는 ‘대좌탕(大座湯)’이 있고, ‘특위차(特爲茶)’라고 하여 특별히 누구누구를 위하여 차를 대접하는 차가 많았는데, 그 종류로는 방장이 대중들을 위하여 내는 차[堂頭煎點], 방장이 새로 입방한 납자들을 위하여 내는 차[芳장특위新掛搭茶], 주지가 신구(新舊) 지사와 두수들을 위하여 내는 차, 또 지사와 두수들이 대중에게 내는 차, 신도승(新到僧, 새 입방승)이 내는 차(茶) 등 그 종류가 <선원청규>와 <최수백장정규>에 나오는 것만 해도 20여 종 가량 된다.

찾자리[茶席, 茶湯]는 많은 대중이 참석하므로 질서와 법도가 엄격했고, 총림의 행단은 발우공양과 같이 일체 무언 속에 진행된다. 차를 마시며 청정(淸空, 번뇌를 비움)과 적정(寂靜)의 경지에 합일하고자 했으므로 다례(茶禮)와 행다(行茶)는 예의와 질서를 갖추어야 하고 정숙해야 했다.

총림에서 다례를 중시했다는 것은 괘담(掛塔, 입방) 절차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입방하고자 하는 납자는 결제 보름 전에 괘담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선원청규> 2권 ‘결하(結夏, 하얀거결제)’ 장에는 “행각승(객승)이 하얀거결제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반월 전(半月, 15일 이전)에 괘담(입방)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다탕(茶湯, 차)의 인사(人事)를 잘챙기지 않게 하기 위해



선암사 스님들이 차를 마시며 다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탕의 인사’란 곧 다례(茶禮)와 행다(行茶)이다. 총림의 찾자리[茶席, 茶湯]는 앞에서 보았듯이 20여 종이나 되고, 또 찾자리마다 예법이 다르고, 총림마다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새로 입방하는 납자로서 다례와 행다를 다 숙지하지 않으면 적어도 15일 정도가 걸렸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특별히 다례나 행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다지 신경을 쓸 것까지는 없지만, 중국 선원의 다례(茶禮)와 일본 선원의 다도(茶道)는 선원 생활에 꽤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가운데서도 특위다탕(특별히 초청하는 찾자리)은 더욱 예법을 중시했다. <선원청규> ‘부(赴)다탕’ 장에는 별도로 한 장(章)을 할애하여 서술할 정

도인데, “특위다탕은 그 예법이 매우 정중하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소홀히 해서 안 된다. 초청을 받으면 모름지기 먼저 참석해야 할 곳과 나중에 참석할 곳을 알아서 그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茶板, 다탕이 있음을 알릴 때 치는 판)과 다고(茶鼓)가 울리면 도착하는 대로 자기가 앉는 자리(자리牌)를 찾아 앉되, 급박하게 서두르거나 어수선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로 본다면 하루에도 다탕(茶湯, 찾자리)이 걸치는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또 <선원청규> 10권 ‘백장규승송(百丈規繩頌)’에는 “신도(新到, 입방승)는 3일 동안 단과료(객실)에서 기다리되, 다탕에 나아가야 한다” “새로 산문에 도착하면 특별히 점다(點茶, 차를 마심)를 하는데,

그 예(禮)가 극히 엄중하다. 무릇 점송(接送, 영접과 배웅)과 잔탁(齋托, 茶托, 찻잔을 받쳐 드는 그릇, 곧 다탕의 위로서 다례를 뜻함)은 반드시 공근(恭謹)해야 한다. 상하를 공경하고 음(揖)을 하되, 예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차를 마시는 예법에 대해 “편안하게 잔탁(齋托, 찻잔 받침)을 잡되, 양손을 가슴에 대어 잡는다. 손을 아래로 처지게 하지 말라. 또한 매우 높이지도 말라. 옆 사람과 서로 견주어 보아 상하 고저(高低)가 제등(齊等, 일직선)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묘(大妙)’라고 한다.” 즉, 몇 백명이 함께 앉아 차를 마셔도 찻잔을 받쳐 든 팔 높이가 똑같이 일직선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齊等). 그리고 그런 상태를 ‘대묘(大妙)’라 칭하고 있는데, 상상해보라. 이런 다석(茶席)은 그 광경 자체가 하나의 선의 세계일 것이다.

또 <선원청규>에서는 “그런 뒤에 전면에 있는 방장 등 초정한 스님과 마주보고 음(揖)을 한 다음 마신다. 차가 뜨겁다고 불어도 안 되며, 잔을 흔들어도 안 된다. 마시는 소리를 내어도 안 되고, 찻잔을 내려놓을 때 부딪치는 소리가 나지도 안 된다(…) 어소(訶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끝내면 서로 합장을 하고 일어선데, 갈 때는 모름지기 질서와 예의를 지켜야 한다. 급히 가더라도 안 되고 큰 걸음으

선원서 차는 손님 접대 수단

찾자리서 선문답도 오가

로 가거나 신발을 끌거나 발자국 소리를 내어도 안 된다. 주(主, 주관자)가 나와서 배웅을 하면 몸을 돌려 합장해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할 때는 미리 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본다면 선종사원에서 다탕(茶湯), 음다(飲茶), 꼭다(喫茶)에 따르는 다례와 행다 등은 그야말로 고준한 다법(茶法)으로서 ‘다선일미(茶禪一味)’, ‘다선일여(茶禪一如)’라는 말을 낳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다탕이 있으면 미리 고지하는데 그것이 ‘다탕방(茶湯榜)’이다. 다탕이 있음을 알리는 방문(榜文, 벽보)으로서, 주로 특위다탕의 경우에 붙이는데, 승당 밖 양측 벽과 승당 내 상하 칸에 붙인다. 그리고 방장이 새로 입방하는 납자들을 위하여 다탕을 열 때는 일일이 입방승들의 이름을 명기하여 붙이는데 그것을 ‘다장(茶狀)’이라고 한다.

찻잔의 크기는 다완(茶碗)이라고 하여 오늘날 말차잔 보다 좀 더 크고, 입방할 때는 다기(茶器)를 갖추라 한 것을 보면 찻잔은 발우처럼 개인이 준비, 관리했던 것 같다. 송대에는 차를 마실 때 향을 피웠는데, 입안에서는 차향, 비근(鼻根)에서는 선향(禪香), 다석(茶席)에서는 곧 불국도였다.



운창학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100분의 스님들과 함께 떠나는 선상용왕재 및 지장성지 구화산 고희천도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행지 | 남경-구화산-연운항

일자 | 불기2555(2011)년 3월26일~4월1일(6박7일)

집결 | 인천 제2국제 여객터미널 1층

등참금 | 1인당 72만원(영가천도 한분당 1만원)

준비서류 | 여권복사본

주최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타종단 스님 및 신도 환영

문의 | 02)2091-0408 FAX : 02)952-0408



(사) 대한불교 조동종